

윤세평 시나리오의 특성과 의미

— 시나리오 「박연암」을 중심으로

김 봉 희 (경남대)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3.2. 긍정적 주인공을 통한 경제 사회주의 구축 |
| 2.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학활동과 시나리오 「박연암」 | 3.3. 들려주기 기법을 통한 인민 사랑 실천 |
| 3. 시나리오 「박연암」에 나타난 특성 | 4. 마무리 |
| 3.1. 완급의 서사 진행을 통한 낡은 사상 비판 | |

국문초록

이 글은 비평가로 알려진 월북 작가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조선영화』, 1960. 11-12)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의 시나리오의 특성은 첫째, 서사를 완급 진행시키면서 봉건적인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낡은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긍정적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경제공산주의 천리마적 기수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시나리오 「박연암」에서 주인공의 목소리, 설화, 등장인물의 들려주기를 통해 박연암의 인민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박연암」이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고전문학의 해석과 관점에 대한 예술적 사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천리마 시대의 전형적인 당적 공산주의의 전

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셋째, 북한문학, 특히 북한 공연예술 연구의 연속성을 마련해주는 작품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윤세평의 재북시기 알려지지 않은 삶과 방대한 문학 활동은 우리가 갈무리해야 하고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료이다. 앞으로 윤세평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주제어 : 윤세평, 재북시기, 시나리오 「박연암」, 완급의 서사, 경제
공산주의, 천리마시대, 들려주기, 인민 사랑

1. 들머리

우리의 근대 문학 연구와 기술은 문학 생산 주체인 작가에 대해 공평한 시선을 두지 못했다. 이른바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서 문학사적 명성을 얻은 작가가 있는 반면 이름 없이 묻혀버리는 이도 많았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 근현대문학 논의는 중앙 명망가 중심의 작가연구와 특정한 갈래의 문학 활동에 그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근대문학사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곧추 세우기보다 그들의 이념적 문학 행보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우리 문학사에서 놓치거나 잃어버렸던 작가에 대한 연구는 해금조치 이후 월북 작가와 그들의 문학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로 이어졌다. 게다가 지역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문학사의 그늘에 묻혀졌던 작가들의 생애를 복원하고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문학사적 빈틈을 메워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사적 기여와 활동에 비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윤세평(1911-?)¹⁾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²⁾

윤세평은 나라잃은시기 화려한 시인이거나 이름난 소설가도 아니었다. 그는 1930년 말 해외문학과의 휴머니즘 논쟁을 시작으로 우리 문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 뒤, 그는 몇 편의 비평을 발표하면서 당대 여러 비평가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지도 비평의 입장에서 여러 작가와 작품에 대해 평가했다.³⁾ 그 당시 그의 비평에서 나타나는 주된 핵심은 문학의 사상성 회복, 조선적인 특수성에 바탕을 둔 창작방법의 확립이었다. 윤세평은 나라잃은시기 우리 비평문단에서 확고한 비평적 입장과 의식을 지닌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광복이 되자 윤세평은 뚜렷한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몇몇의 비평과 수필을 통해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의지를 보였다. 이

-
- 1) 윤세평의 본명은 윤규섭(尹圭涉)이다. 그는 1911년 8월 11일 전북 남원군 운봉면 북천리에서 태어났다. 1922년 운봉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해 전주공립보통학교에 진학했다. 그가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무렵 청년운동에 투신하여 신간회 전주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을 지냈다. 그는 신간회 전북지부 간부였던 이명수의 지시에 의해 동맹휴학을 선동했다. 그리고 여학생 중심의 비밀 결사대 '적광회'를 통해 『뉴쓰』 창간호를 등사하여 발송예정이었으나 1929년 7월 23일 전주극장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격문을 배포도중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윤세평은 검거되었고, 거기다 '고려공산청년회'사건까지 혐의가 추가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는 3년간의 수감생활을 겪게 된다. 수감을 겪고 난 뒤, 1937년 4월 3일에서 6일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문단향변- 그 사상적 혼미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전문적인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광복 후, 남한에서는 이렇다 할 활동과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1946년에 월북하여 북한에서 왕성한 문학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의 재북시기 문학적 행보와 문필활동에 관해서는 II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2) 신원 복권이 된 지 스무 해가 넘도록 윤세평의 개별적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북 남원이라는 소지역을 기반으로 평론 활동한 '윤규섭'이 훗날 북한에서 개명하여 '윤세평'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 북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윤세평은 1961년 9월 '제4차 로동당대회'이후로 카프계의 숙청바람이 일기 전까지 북한 문학평론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류희정이 엮은 『해방전평론집』(문예예술출판사, 2009)과 『해방후평론집』(문예예술출판사, 2015)에서 윤세평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북한에서 발간한 문학서적 안에 윤세평에 대해 거론된 것이 없다. 숙청 이후, 북한문학사에서 윤세평의 서적 기록이나 작은 흔적마저 지워지고 말았다.
 - 3) 남원진, 「윤세평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학론의 향방」,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009, 280쪽.

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그는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⁴⁾

월북 후, 윤세평은 남한에서와는 달리 북한 문단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왕성한 비평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와 더불어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민주조선사’에서 일하면서 언론·출판부분에 자신의 비평을 신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을 맡아 강단에도 서기도 했다. 그 뒤, 1961년 9월 제4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주창한 ‘전일적 혁명전통 수립’이라는 당 과제에 대해서 카프의 정통성을 주장한 한설야가 숙청되고, 그의 측근이었던 윤세평도 숙청의 바람을 비껴가지 못했다. 하지만 윤세평은 북한의 현장 비평가로서 문화운동의 실천 이념을 제공하며 현장비평을 몸소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두터운 활동은 고전문학의 체계적인 정리 및 주해에 따른 출판물 간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세평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와 작가론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윤세평의 문학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1930년대 말 『조선일보』, 『동아일보』, 『비판』, 『인문평론』 등 매체에 발표한 윤세평의 비평을 분석한 연구들이다.⁵⁾ 대부분 윤세평의 논의를 끌어다 설명하고 있거나 다른

4) 윤세평의 월북 시기는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뉜다. 첫째, 남원진은 그의 월북을 1946년 10월 13,14일 이전으로 잡고 있다. 이것은 1946년 10월에 결성된 ‘북조선 문학예술동맹’의 참가를 확실한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둘째, 최명표는 1945년 8월 광복직후로 잡는다. 이 주장은 윤세평의 장조카 윤세웅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윤세평이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수필 「동해물」(『신문학』, 1946. 6)의 토대로 본다면 아마 그의 월북 시기는 1946년 7월에서 8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신재기, 「문학과 생활실천- 1930년대말 윤규섭의 비평의 의미」, 『예술논문집』 32, 1993.

서경석, 「KAPF에 대한 카프 주변부의 비판과 그 가능성」,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오하근, 「김환태의 인상비평과 윤규섭의 경향비평론」, 『한국언어문학회』 57, 2006.

권유리아, 「1930년대 윤규섭 비평의 다혈질적 원칙주의」,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비평가의 이론을 대조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명표의 연구는 나라잃은시기 윤세평의 작품을 엮어 그의 남한에서 비평 활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둘째, 윤세평의 재북시기 비평과 고전작품 주해, 시문학에 대한 논의들이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학 활동을 특정한 갈래에서 머물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활동의 연관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아울러 윤세평 문학에 대한 편향적인 단면적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필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다양한 문학 활동 양상을 짚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학 활동 가운데 창작활동에 주목한다. 비평문학 활동가로 알려진 윤세평이 창작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이색적이지만 북한 문단에서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 노선에 따라 문학가들이 다른 갈래 글쓰기와 정치 평론 등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글쓴이가 윤세평의 재북시기 창작 작품을 갈무리한 것을 정리해보면 모두 13편에 이른다. 그 창작 작품은 경험 창작물인 전투기 1편, 수상 2편, 격문 1편, 독후감 1편, 기행문 2편, 수필 2편, 편지글 1편이며 창작·각색 작품에는 시나리오 1편, 전설을 이야기화한 동화 2편이다.⁷⁾ 그 가운데 ‘연암서거 154해’가 되던 1959년에 창작한 시나리오 「박연

최명표, 「인식의 비평과 비평의 인식 - 해방전 윤규섭의 비평론」, 『인식과 비평』 (윤규섭의 비평전집1), 신아출판사, 2015.

6) 이상숙,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 논의의 양상」, 『국어국문학』 120호, 국어국문학회, 1997.

남원진, 「윤세평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학론의 향방」,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009.

신지연, 「북한문단의 자유시 운율 1957-1961년 사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집, 2012.

진영선, 「북한의 민족문학 이론가, 문학평론가 윤세평」, 『북한을 움직이는 문학예술인들』 역락, 2014.

송소라, 「북한의 『심청전』 수용양상과 의미」, 『Journal of Culture』 30집, 2015.

7) 윤세평의 재북시기 창작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행: 「초원에 솟은 태양의 나라」, 『국제적 벗을 찾아서 몽고, 월남, 독일 민

암」은 윤세평의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영화창작에 몰입시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게다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연암 박지원의 삶과 작품을 ‘민족적 공산주의’의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공산 사회의 전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조선영화』, 1960. 11-12)을 발굴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세평의 고전문학에 대한 역량과 해석의 결정체라는 점이다. 둘째, 천리마시대의 전형적인 공산산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창작 결과물이다. 셋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 위한 혁명적 문화예술 수단으로서 영화예술의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글쓴이는 지금까지 개별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윤세평

주의공화국 방문기」, 국립출판사, 1956, 「몽골 녀성들」, 『조선녀성』 12월호, 조선녀성사, 1956.

전투가: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상),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7,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중),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8,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하),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9,

수상: 「9월의 새로운 결의」, 『청년문학』 11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천리마 기수의 영예를 지니고」,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위원회, 1961. 4. 25.

격문: 「붓끝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리라」,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위원회, 1960. 4. 22.

독후감: 「유리우쓰 푸척 작 『교형수의 수기』를 읽고(상)」,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1949. 9. 25, 「유리우쓰 푸척 작 『교형수의 수기』를 읽고(하)」,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1949. 9. 28.

수필: 「동해물」, 『신문학』 제2호, 서울타임스사출판국, 1946. 6, 「고도평양」, 『조선문학』 10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편지글: 「친세봉 형에게」, 『문학신문』, 조선작가중앙위원회, 1962. 7. 20.

시나리오: 「박연암」(상), 『조선영화』 11월, 조선예술사, 1960. 11, 「박연암」(하), 『조선영화』 12월, 조선예술사, 1960. 12.

전설각색: 「릉라도와 주암산」, 『아동문학』 6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홀명도사」, 『아동문학』 11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의 시나리오 작품에 눈을 돌려, 그의 문학 활동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접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학활동과 시나리오

「박연암」

“날이 가고 달이 가시어도 해방의 길은 아득하고, 것잡을 수 없는 혼돈만이 맴을 치고 있다. 결합과 분열,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의 이 모든 교착성이 오히려 혁명이 특유한 현상을 비치였다고 한다. 민중이 존경하고 흠양하던 지도자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대중적인 실험대 우에 올라서서는 너머지고, 올라서서는 너머졌다. 혁명의 탈춤은 날카로웠다. 모든 환상적인 인물과 집단은 대중 압에 여지없이 베일을 벗기고 말았다. 남는 것은 혁명의 거센 물결만이 도도할 뿐이다.”⁸⁾

광복 후, 윤세평이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수필 「동해물」(『신문학』 제2호, 1946. 6)에서는 광복기의 이념 대립적 혼란기 상황을 뚜렷이 담고 있다. 그는 혼란기 속에서도 자신이 지녔던 혁명적 이념을 지켜나가기 위한 고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남한에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을 짐작하고 당시 상대적으로 혼란기에 대한 정비를 이루고 있는 북쪽을 선택하게 되었다.⁹⁾ 월북 후, 그는 북한문단에 정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¹⁰⁾

8) 윤세평, 「동해물」, 『신문학』 제2호, 서울타임스사출판국, 1946. 6.

9) 윤세평은 월북 당시 “방각본 옛소설과 고전문학 자료를 수레에 가득 싣고 떠났다.”는 그의 장조카 윤세웅의 증언은 놀랍다.(최명표의 발언, 2015. 2) 월북이라는 결단과 긴장 속에 그 많은 고전 문학의 자료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북한문단에서 해야 할 몫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월북 후 자신의 확고한 문학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윤세평의 재북시기 문학 활동과 서적에 대한 기록은 박태일의 「재북시기 윤세평 문헌지」(『근대서지』 제14호, 2016)를 참조하였다.

북한 문단에서 처음으로 윤세평의 이름이 선보인 것은 1946년 3월 25일 결성된 ‘북조선 예술총동맹의 집행위원’의 명단이다. 이 명단에는 아직 남한에 있던 문인들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윤세평의 이름도 인맥 차원에서 올려 졌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10월 13일 북한에서는 ‘북조선 예술총동맹’이 다시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면서 윤세평은 ‘북조선문학총동맹’의 중앙위원과 중앙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부터 본명 ‘윤규섭’과 필명 ‘절산’을 버리고 ‘세평’으로 이름을 바꾼다.

윤세평은 월북 초부터 1948년까지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과 ‘민주조선사’에서 일하였으며¹¹⁾ 그 당시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영역은 단연코 비평이었다. 1947년 민주조선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신조선민족문화소론』(민주조선출판사,1947)을 펴냈는데, 그 안에는 월북이후 1947년까지 발표한 네 편의 비평 글이 수록되어 있다.¹²⁾ 그 가운데 「해방과 문학예술」(『조선문학』 창간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1947)에서는 남로당계열의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화론을 비판하며 “신민족문화는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의 반봉건적 문화이며 세계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 문화혁명”임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당시 10000부를 찍어낼 정도로 북한문단에서 대단히 힘 있는 비평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평은 1947년 3월 28일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9차 결정서에서 ‘고상한 리얼리즘’이 대두되는데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월북 초기 윤세평의 비평 활동은 북한 비평문단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¹³⁾

11) 윤세평, 「저자략력」, 『해방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343쪽.

12) 윤세평의 날책 『신조선민족문화소론』(민주조선출판사,1947)안에는 「민족문화론」(『신문예』 2호, 신문예사2호, 신문예사, 1946. 7), 「신민족문화 수립을 위하여」(『문화전선』 2, 북조선예술총동맹, 1946), 「신조선 문화의 성격과 그 기초-인민경제 실시와 문화문제」(『문화전선』 5, 북조선예술총동맹, 1947), 「해방과 문학예술」(『조선문학』 창간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1947)가 실려져 있다.

13) 1947년 『조소문화』와 『문학예술』이 창간되면서 ‘북조선문학동맹 전문분과위원’ 명단이 발표되는데, 윤세평은 한효, 안함광, 신고송 등과 함께 평

윤세평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난후부터 1954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 강좌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 시기부터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오던 고전문학에 대한 역량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그의 고전문학에 관한 첫 날책이 바로 『고전 춘향전 연구』(국립인민출판사,1949)이다. 북한문단으로 보아서는 고전문학에 관한 첫 연구서이다.¹⁴⁾ 이 무렵, 경인동란이 발발하면서 모든 문학 예술인들이 종군해서 인민군을 격려하거나 후방에서 인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원이 되었다. 이 당시 그도 마찬가지로 문인들이 흔히 남긴 전투기를 발표했다.¹⁵⁾

윤세평은 1954년에 들어 옛 소설 주혜서와 고전문학 연구서를 펴냈다. 그가 펴낸 주혜서는 모두 국립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홍길동전 전우치전』, 『심청전』, 『홍부전』이 있으며 연구서는 『리조문학의 사적 발전 과정과 제 장르에 대한 고찰전』이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전쟁복구건설과 함께 북한문단에서 겨레 예술문화 전통의 발굴과 복원에 대한 연구 사업에 의한 것이었다. 윤세평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혜서가 발간되지만 단연코 윤세평의 옛 소설을 재구성하는 역량이 돋보였다. 그리고 『리조문학의 사적 발전 과정과 제 장르에 대한 고찰』은 조선시대 문학을 총체적으로 바라는 안목이 드러내고 있는 뛰어난 연구서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 강좌장을 역

론위원에 선출된다. 조선작가동맹, 「북조선문학동맹 전문분과위원 명단」, 『문학예술』 창간호, 문학예술출판사, 1947.

14) 『고전 춘향전 연구』(국립인민출판사,1949)는 총3장과 부록으로 엮어져 있는데 1장은 서론과 춘향전 그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2장 춘향전에 대한 분석과 연구, 3장 결론, 부록으로는 원본 『춘향전』과 「열여춘향수절가라」, 「춘향전」(하)를 붙였다.

15) 실제, 윤세평은 종군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가 발표한 전투기는 1951년 3월 31일 새벽부터 4월 24일까지 리정범 부대가 문산에서 미군 낙하산 부대와 만나 벌인 승리에 대한 기록을 (상),(중),(하)로 나누어 『로동신문』에 실었다. 사실상 그 내용의 사실여부도 알 수 없다.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상),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7,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중),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8, 「미군 락하산 부대 섬멸기 -문산지구에서 세운 리정범 군대의 위훈」(하),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1. 4. 29.

할을 충실히 다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55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애국적 학자 박연암선생』(민주청년사), 『임진록』(민주청년사), 『조선문학사(15-19세기)』(교육도서출판사) 고전문학에 관한 세권의 책을 발간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애국적학자 박연암선생』(민주청년사)과 『임진록』(민주청년사)은 독자층을 청소년층으로 낮추어 고전인물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문학사(15-19세기)』(교육도서출판사)는 집필 당시부터 교육도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판되어졌다. 이를 통해 그의 고전문학 연구는 옛 소설에서 인물, 역사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물연구에서는 박연암에 대한 글들이 유독 많다. 이것은 북한문단에서 노골적으로 박연암 연구와 인물해석에 주력한 결과인 동시에 윤세평 자신도 공산주의자 전형적 모델로 박연암을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창작물이다.¹⁶⁾

“박연암 선생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를 쪼먹고 인민을 착취하는 량반 관료와 지주들을 반대하여 싸운 열렬한 투사였습니다. 선생은 또한 우리의 락 후한 사회, 경제, 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적인 과학, 기술, 문화를 발양시킨 선진적인 계몽학자였습니다. 선생은 또한 정의와 진리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인도주의자이며 애국자로서 온갖 허위와 기만, 부패하고 낡은 것을 세찬 풍자의 불길로 불살아 버리는 위대한 풍자작가이며 사실주의 문학의 대 문호였습니다.”¹⁷⁾

같은 해, 그는 8월 7일에서 8월 27일까지 ‘조선과학문화 대표단’으로 몽골

16) 북한문단에서는 ‘연암탄신일’과 ‘서거일’이 되면 『로동신문』에 기념식 기사를 신거나 출판물을 발간하기도 했다. 1955년은 ‘연암서거 150주년’을 맞는 해로 『로동신문』에서는 여러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연암의 생애와 활동, 저서, 양반진 내용을 싣고 있다. 로동신문 편집부, 「조선이 낳은 진보적 사상가이며 탁월한 작가 연암 박지원 -그의 서거 150주년에 제하여」,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5. 12. 10.

17) 윤세평, 『우리나라의 애국적학자 박연암선생』, 민주청년사, 1955, 166-167 쪽.

에 다녀왔다. 그는 몽골 기행을 통해 경인동란 시절 압록강 기슭으로 넘겨준 200명의 전제북한의 고아들을 돌봐준 몽골의 애육원 보모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¹⁸⁾ 북한에는 이 시기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퇴치를 내걸고 박헌영 일파를 처형했고, 1956년에는 종파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이 종파분자로 숙청당했다. 그가 살벌한 북한 정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전문학에 대한 역량과 당의 노선을 지지하며 순응했기 때문이다.

1956년 이후, 북한문단에서는 대부분 종파사상 가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의 글이 게재되었다. 윤세평 역시 『로동신문』에 이태준의 소설을 비판하는 글 「민주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모독한 리태준의 반혁명적 문학-그의 소설 『농토』와 『호랑이 할머니』를 중심으로」(『로동신문』, 1956. 6. 30)를 발표했다. 그리고 1956년 『청년문학』이 창간되면서 신인들의 평론을 읽고 격려와 비평에 대한 제시를 해주는 선배 비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은 전후복구 시기에 경제계획을 일찍 달성한 1958년부터 공산주의 문학이 도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성에 비껴선 것은 모두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윤세평은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주필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시 ‘조선인민위원회 선진국’과 ‘민주조선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동시에 ‘조선작가동맹 평론분과위원장’과 『문학신문』의 주필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북한문단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당시 출간된 『해방전 조선문학』(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은 문학의 기원에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학에 대한 넓은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는 『김만중선집』(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과 공저 『고전작가론 2』(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를 발간하여 고전문학 연구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보여주었다.¹⁹⁾

18) 윤세평, 「몽골 여성들」, 『조선여성』 12월호, 조선여성사, 1956.

19) 공저 『고전작가론 2』(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안에 윤세평을 비롯한 김

1960년대를 접어들자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했다. 그에 발맞추어 북한문단에서도 천리마 시대의 문학 작품 형상화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고가는가 하면 남한으로 향한 반동문학의 비판 글이 쏟아져 나왔다. 이 당시 윤세평도 천리마 시대에서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비평 글과 신인들을 위한 창작 지도서를 펼쳐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의 문학 활동도 새로운 영역의 폭으로 확장시켜갔다. 그 시도의 한 보기가 시나리오 창작과 영화 비평에 대한 접근이다. 아마도 그는 천리마시대에 인민들에게 가장 공산주의 모범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갈래가 영화예술임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이 시기 윤세평의 천리마 시대 문학 구현의 양상을 시나리오의 창작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시나리오 「박연암」은 ‘연암서거 154해’가 되던 1959년에 창작하여, 1960년 『조선영화』 11월호와 12월호에 연재 되었다. 윤세평은 기존의 고전문학에 대한 주해와 연구서에 나타난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영화 예술 방식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18세기 실학과 사상과 박연암의 문학」,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3.

「『연암작품선집』에 대하여」,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4. 10. 12.

「연암」,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1954. 12. 6.

『우리나라의 애국적학자 박연암선생』, 민주청년사, 1955.

「박연암과 그 미학적 견해」, 『박연암연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연암과 조선문학」,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1955. 3. 5.

「박연암의 열하일기」,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1955. 7. 20.

「김하명 작 연암 박지원」, 『조선어문』 제1호, 과학원출판사, 1956.

「박연암과 연암동에 대한 수기」,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1956. 12. 13.

「연암과 사실주의의 힘」(박연암 탄생 220주년 기념특집, 『조선문학』 3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하명 등이 각기 비평글을 실어 놓았는데, 그가 실은 글은 「서포 김만중과 그의 창작」이다.

「박연암의진학시절」, 『새세대』 5·6월합호, 조선민주청년동맹위원회, 1962.

윤세평의 고전 연구는 다산, 연암, 서포, 정철 등 다양한 작가와 주요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용한 연구와 비평목록만 보더라도 유난히도 연암에 대한 글과 기록이 많다. 이것은 당 정책을 수행 한 북한문단의 동향과 윤세평 자신의 연암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²⁰⁾ 한편, 작가가 생각하는 ‘연암 박지원’의 삶과 행적은 민족적 공산주의 형상화 대상으로 적합했으며 개인적으로 연암 박지원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시나리오 「박연암」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그의 시나리오 속에는 연암을 중심으로 형성된 긍정적 인물 군을 통하여 공동체적 협동체제와 경제공산사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더불어 영화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낡은 일체의 모든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개혁에 대한 의지를 투영시키고 있다.

이 당시 윤세평은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주필로 일하고 있으면서 시나리오 「박연암」 작품을 『천리마문고』(조선작가동맹출판사단행본시리즈, 1960)에 실었다. 실제 이 문고판을 통해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편집부들은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 중심에 윤세평이 있었으며, 시나리오 「박연암」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 시나리오가 상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61년 4월 25일자 『문학신문』에서 윤세평과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편집부에 대한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식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1961년 2월 영화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²¹⁾

20) 북한 문단에서 ‘연암 박지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제 인민 생활 가까이에서 인민사랑을 실현하는 애국자의 모습이다. 둘째, 낡은 것에 반대하는 반봉건적인 사상을 지닌 투사의 모습이다. 셋째,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하는 그 사상의 목적이 명확한 개혁자이다. 넷째, 새로운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 진보주의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계급 투쟁적 원칙에서 바라본 연암 박지원의 생애와 문학 작품이야말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되고 만 것이다.

21) 「천리마기수들에게영광을!」(『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1961.4.25.)의 기사에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편집부 사진과 더불어 천리마 기수 수여식 순서와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기사에서는 『천리마

이 무렵, 그의 비평 활동도 힘 있게 전개되었다. 그의 월북초기 비평을 엮은 책이 앞서 소개한 『신조선민족문화소론』(민주조선출판사,1947)이라면, 1950년대 이후의 비평 글을 엮어서 묶은 책이 『생활과 문학』(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이다. 월북 이후, 북한문단 현장에서 강력한 비평과 고전문학에 두터운 역량을 발휘한 그의 글은 「천세봉형에게」(『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위원회, 1962. 7. 20)를 마지막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훗날 북한에서 간행한 문학사나 참고서적 난에도 그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월북이후 윤세평의 문학 활동은 비평, 고전문학 연구와 주해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었다. 그리고 비평·연구와 함께 언론·출판에 관계하면서 그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였다. 이러한 그의 뚜렷한 문학 활동은 당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천리마기수’라는 영예까지 안기도 했다. 결국 윤세평도 항일혁명성을 강조하여 나가는 주체사상시대 앞에서 숙청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윤세평은 재북시기 그가 가진 비평의 깊이와 고전문학에 대한 뛰어난 역량으로 당 정책을 수행하며, 북한 비평계의 토대를 마련한 실천적 이론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나리오 「박연암」에 나타난 특성

전후복구 시기 북한에서는 민족문화 계승의 차원에서 고전작가와 고전문학 사료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역사주의에 의지하지 않고 계급투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문화를 합리화하였고, 이를 천리마시대에 공산주의 전형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 문단에서 노골적

문고』 단행본에 글을 실은 작가나 작품에 대한 약간의 언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의 영화제작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1962년 7월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는 윤세평의 시나리오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연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으로 민족문화의 표상으로 삼은 이는 ‘연암 박지원’이다.

이러한 북한문단의 입장에서 ‘연암 박지원’의 생애와 사상을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세평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고전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두터운 역량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주필로 『천리마 문고』 간행을 맡은 것도 시나리오 집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작품에 내포된 사상을 영화예술 작업에 옮긴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의 특성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3. 1. 완급의 서사 진행을 통한 낡은 사상 비판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은 박지원의 일대기 가운데서도 서울 백문골 연암의 사랑글방 시절에서 중국기행을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집필하고 난 뒤까지이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기 박연암을 둘러싼 주변 인물과 조선 후기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의 구성은 서경과 함께 34장면으로 형성되어 있다.²²⁾ 글쓴이는 시나리오 「박연암」의 34장면을 29개의 서사진행 과정으로 나누어 그 구성형태를 살펴해보도록 한다.²³⁾

서경- 박연암이 금강산 여행을 갔을 때 충석정에 올라 해돋이 광경을 보고

22) 다소 소설 서사적 전개 방식이 결합되어 장면 분할이 섬세하지 못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23)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의 34개의 장면 가운데도 하나의 장면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가 하면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장면분할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 사실은 윤세평이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극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영화는 상연예술이자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화연출로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윤세평의 장면분할 34개 가운데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여 29개의 서사진행 과정의 특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쓴 시 「총석정 해돋이」를 박연암의 목소리로 읊는다.

- ① 서울 사대문이 열리고 인민들이 부지런히 새벽의 여는 모습.
- ② 김사행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명 종력 황제 순사날을 잊고 있음을 나무라며 제사준비를 서두른다. 이때, 김사행을 찾아온 연암은 그의 행동을 보고 사대명리를 따지는 김사행을 실학적 논단으로 비판함.
- ③ 연암은 글방을 나간 엄수동을 찾으러 엄수근의 집을 찾아가. 엄수근을 통해 부지런한 농사꾼의 모습을 봄. 연암은 엄성근에게 자신이 엄수동을 데리고 가서 글공부를 시키겠다고 약속함. 연암은 그곳에서 김포의 흉년으로 민란이 일어나고, 엄성근 집으로 찾아온 지주의 횡포를 직접 목격함.
- ④ 세손의 익위사 사직 홍보영에게 아침하기 위해 찾아온 인사들과 잔치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사행과 홍보영은 세손비를 홍보영의 누이로 간택하는 계약을 꾸민다.
- ⑤ 박연암은 엄성근과 함께 종이를 사기 위해 종루로 가기 위해 청계천 변을 걷다가 광통교 위에서 거짓 행세를 하고 박연암의 소설 「마장전」을 연기하는 사람을 봄. 종루 거리를 지날 때 김포 민란에 가담한 신관들이 패서를 붙이고 달아난다. 그 패서를 유심히 바라보는 엄성근. 그 모습을 날카로운 눈매로 쏘아보는 기찰포교의 모습.
- ⑥ 밤이 되자 엄성근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위 신관들.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기찰포교가 찾아옴. 신관들은 도망을 가고 엄성근과 순이를 붙잡혀 감.

시나리오의 서경은 박지원이 금강산 구경을 갔을 때 총석정에 올라 해돋이 장면을 보고 쓴 시 「청송정의 해돋이 구경」을 읽고 있다. 실제 북한문단에서 「청송정의 해돋이 구경」은 우리문학에서 보기 드문 ‘사실주의적 시’라고 칭송 하는 시다.²⁴⁾ 이 시를 직접 연암의 입으로 들려줌으로써, 인민관객과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환기뿐만 아니라 극의 몰입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서경을 제외한 전체 시나리오의 순차적인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나리오의 첫 부분은 ①부지런한 인민들의 건강한 삶과 함께 연암 글방을 둘러

24) “선생은 우리나라 명승지와 고적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시와 글들을 많이 썼던 것이나 특히 강원도 총석정에서 해 뜨는 광경을 보고 지은 시는 광명이 어둠을 헤티는 것을 노래한 훌륭한 시였습니다.” 윤세평, 『우리나라의 애국적 학자 박연암』, 민주청년사, 1955, 60쪽.

싼 다양한 인물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일하는 엄성근, 그의 아들 엄수동, 글방의 제자 리덕무, 류득공, 박제가, 글방 학생이면서 명리만 따지는 남인철, 박동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그 사이 ②성리학의 논리만 따지는 김사행의 언동을 논단하는 박연암의 단호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③과 ⑤에서는 조선 후기 인민들의 피폐화 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²⁵⁾ 김포 민란의 발발, 지주와 탐관오리 횡포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소작 인민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②와 ④에서는 자신의 권세와 이속을 좇는 이들의 간교한 모습을 ①, ③, ⑤사이에 장면으로 넣고 있다.

시나리오의 앞부분은 소설적 서사적 전개 방법에 따라 발단부분과 궤사 사건을 통하여 엄성근의 가정에 불안한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느린 전개 방식 안에 놓여있다. ①과 ③은 풀샷의 전경을 담아 다양한 인물과 조선 후기 정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인민들의 고택 속에서도 자신의 이속과 명분만 챙기는 양반 사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통해 시대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서사 장면부터는 빠른 전개를 취하고 있다. ⑦연암은 좌포도청으로 좌포장을 찾아가 엄성근이 무고함을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⑧연암은 죄 없는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든다. 연암은 이 상황을 자신의 날카로운 풍자정신으로 「예덕선생전」을 집필함으로써 투쟁의 발판을 마련한다.²⁶⁾ 이 장면은 드디어 연암이 붓끝의 힘으로 인민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부분이며, 낡은 것에 대한 자신만의 비판정신을 마련하고 있다.

25) 시나리오 상에서 세 명의 남자는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박연암의 소설 「마장전」을 연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양반의 모습을 지적하며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들이 입었던 도포와 갓을 내팽개치고 밟는다. 희곡에서 극중극 형태를 띠고 있다.

26) “「예덕선생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써내려가는 박연암은 등불이 가물거리면 다시 심지를 돋우고 먹물이 마르면 연적을 기울여 다시 먹을 갈아 쓰기 시작한다. 어디서 닭우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 올 때는 그가 초고를 끝내고 추고를 하고 있다.” 특히, 「예덕선생전」 집필과 추고의 과정은 빠른 장면설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윤세평, 시나리오 「박연암」, 『조선영화』(상), 조선예술사, 1960. 11, 34쪽.

다시 「예덕선생전」 출간 이후의 서사 진행은 느리게 진행된다. ⑨ 그의 글방 제자들 간의 대립적 갈등으로 박동수와 남인철은 김사행의 글방으로 옮겨 간다. ⑩ 홍보영과 좌포장, 김사행 무리는 「예덕선생전」의 파동이 커지자 이미 죽기일보 직전의 엄성근을 풀어주자고 합의한다. ⑪ 연암의 집으로 곤쟁이젓 장수로 꾸미고 온 신관들에게 엄성근은 좌포장에서 풀려났지만 장독으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의 딸 순이는 홍보영의 노비로 팔려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듣는다. ⑫ 그 상황 속에서 박연암은 자신의 지인인 홍담헌과 유사경으로부터 금강산 구경에 대한 제안을 받는 부분으로 이어진다. 이 서사 장면들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들에서는 간소한 낮은 세력들 때문에 쓰러져가는 인민의 비참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에서 인민들은 양반사회에 대한 부조리한 모순에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불씨가 짝 띄게 된다.

박연암의 금강산 여행 장면부터는 빠른 서사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⑬ 금강산 구경을 가는 도중 연암은 인민들의 건강한 노동력과 동시에 흉년과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해서 금강산의 여러 명승지를 구경한다. 영화예술의 특징상 모든 공간이동을 장면분할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빠른 화면전환 속에 공간이동을 통해 박연암이 우리의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⑭ 이에 힘입어 연암은 낮은 것을 없애고 인민들을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선에 대한 개혁의지를 불태운다. ⑮ 그리고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연암은 『방경각외전』을 묶는 모습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

그 다음부터는 시나리오의 중반부에 접어든다. ⑰ ⑱ 홍보영과 좌포장 무리들의 박해를 피하고 ⑲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연암 가족의 모습과 ⑳ 연암협으로 들어온 연암의 가족과 그를 따라와 도움을 주는 백영숙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장면에서는 연암협에서는 흙갈이를 하며 논농사 계획을 세우는 등 연암의 다각적인 영농법이 자세하게 묘사된다.²⁷⁾ 이 장면들은 인민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27) 연암협은 솥을 일구어 팔고 너구리 노루를 잡아 생계를 삼고 있다. 박제가는 모

넓은 것과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위한 박연암의 실학사상을 재현해 보이고 있다. 이 장면은 천리마운동을 통해 공동협력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의 전략과도 맞물리고 있다 하겠다.

영화의 장면은 한참을 연암협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다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다. ㉑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매관 매석하는 홍보영 일당의 모습과 홍보영에게서 급탈 위기를 모면한 순이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진다. ㉒그에 대항하는 신관들과 엄수동은 순이를 찾기 위해 연암협을 떠난다. ㉓곧이어 홍보영의 집에 불을 질러 순이를 구출해 오는 장면이 연출된다.²⁸⁾ ㉔그리고 연암의 제자 가운데 서자 출신인 리덕무, 유득공, 박제가가 규장각 직제학 벼슬을 얻고 스승 연암을 찾아오고, 연암은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㉕반면,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 앞에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홍보영과 그 무리들 모습이 대조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연암의 주변의 인물들의 동향을 빠른 전개과정 속에 놓아줬다면 ㉖연암협의 농사풍경 부분은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연암의 사상이 잘 정리되어 협동 농업체제의 모습을 풀샷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그 속에 팔촌형인 박명원이 중국 사신으로 갈 때 연암을 동행하기로 한 연락을 받는다. 드디어 연암에게 중국기행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연암에게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

형수차를 조립하고 박연암과 주위 인민들과 넓은 세상을 새롭게 꾸며나갈 연암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8) 순이의 동생 엄수동이는 홍보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틈을 타 거지 행색으로 홍보영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 잔술까지 불을 놓아 붙인다. 불이 온 집안으로 타오르자 식솔들은 불을 피해 나온다. 그 속에 순이의 모습을 발견한 수동과 관들은 순이를 남장으로 꾸민 뒤 도성을 빠져나온다. 순이를 구해오는 계급투쟁적인 장면에서는 '방화'가 사용된다. 방화는 이미 프로문학에서 계급적 투쟁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프로문학과 시나리오의 다른 전개는 방화부분이 마지막 장면에서 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객이나 독자들은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긴장감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인들과 전별식 회포 자리가 아주 많은 서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구성상의 집중도와 중국기행을 떠나는 연암의 포부를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 ㉞ 중국기행-산해관, 마리잔성, 둘러봄. 중국의 뛰어난 풍경을 통해 우리 조선의 인민들을 생각함. 열하 태학관에서 과학, 우주원리에 대해 얘기를 나눔.
- ㉟ 박연암(연암산거)은 열하일기를 집필함 - 「범의 꾸중」 집필 도중에 수동이가 연암협을 방문한다. 이때, 수동이는 무인도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신관돌과 순이의 얘기를 듣고 농사에 관한 책을 등사해준다. 그와 동시에 이들의 생활을 듣고 「허생전」을 집필한다.
- ㊱ 『열하일기』를 두고 박동수와 박제가 설전.
박동수는 홍보영이 연암에게 벼슬길에 오를 것을 도움을 준다고 하자 연암은 동수를 나무란다. 박제가가 신이 나서 「허생전」을 읽어 내려간다. 이때 박동수가 『열하일기』를 불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박제가가 제지한다.
- ㊲ 홍보영의 사랑에서는 좌포장이 「허생전」에 나오는 어영대장이 자신임을 알고 분노한다.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금서로 지정한다. 하지만 그의 책은 「예기」와 같은 책 표지만 바꾸어 사람들이 많은 읽는다. 그 속에 박연암의 흐릿한 모습이 겹쳐서 나온다. 박연암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확신이 찬 목소리로 말한다.

다음 장면은 빠른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기행과 연암산거에서 열하일기를 집필하는 장면과 「허생전」을 둘러싸고 벌이는 박제가와 박동수의 설전을 다루고 있다. 이 와중에도 박제가가 신이 나서 「허생전」을 읽어 내려가는 장면은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낡은 사상에 빠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어영대장과 새로운 사상을 제안하는 허생의 이야기가 상반되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시나리오의 구성상 문제보다 「허생전」 작품이 주가 되어 복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마지막 장면이 빠른 화면 전환의 속도감 속에서 낡은 사상에 대항하는 박연암의 개혁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극작술과 마찬가지로 절정에서 하강하는 부분에서

긴장된 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긴장된 계기는 주인공에게 비극적 결말을 암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주인공은 더 이상 비극적인 난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하강부분은 박연암 주변 인물들이 낡은 것에 투쟁하는 장면들과 「허생전」 집필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

이처럼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은 완급의 서사를 전개하면서 시나리오 첫 부분은 느린 속도로 조선 후기의 사대부의 명리와 권세를 좇는 과정에서 고통 받고 꺾박받는 인민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빠른 전개부분은 박연암의 작품을 통해 일체의 낡은 사상을 비판하는 풍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나리오 후반부에서는 느린 서사전개를 통하여 연암의 인민사랑정신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빠른 전개를 통해서 연암의 주변 인물이 낡은 사상에 대립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곧, 계급투쟁 관점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뒷부분으로 갈수록 박연암의 사상과 작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복잡한 구성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이를 통해 서사의 필연성을 떨어뜨리고 주제 집중력도 흐려지고 있다.

3. 2. 긍정적 주인공을 통한 경제 사회주의 구축

경인동란이 끝난 후, 북한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은 경제복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닦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권유지와 체제 보장이라는 정권야욕으로 몇 차례의 숙청과 함께 도시와 농촌에서 생활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시키고자 했다. 더불어 사회주의 건설 대고조 운동으로 ‘천리마 운동’을 개시했다. 이 운동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퇴치하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문학전반에서도 이러한 당 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농민의 투쟁을 담은 ‘천리마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에서도 연암 박지원을 삶과 문학작품을 통해

인민대중이 낡은 봉건제도에 투쟁·단결하며 결국 공동체적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적 사회주의의 주인공은 바로 박지원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로 상징하고 있다.

“연암형, 아무리 거짓이 참된 것으로 행세하는 세상일지라도 천하를 널리 그리고 멀리 내다본다면 이 어둠속에서도 아직도 미약하다 하겠지만 광명의 빛을 반드시 찾을 결세. 일찍이 류반계나 리성호가 새로운 토지제도를 주장한 것도 내가 산대협 놓는 것을 일삼고 저 달이나 천문을 연구하는 것도 다 그런 신심이 없다면 어찌 할 인가!”

박연암은 발을 멈추면 홍담헌의 손목을 잡으면서

“고마와, 담헌 형. 나는 그 광명을 상일하는 근면한 사람들에게서 찾았네. 그런데 양반 토호들은 그들에게서 소를 빼앗으려고 하고 관리는 무고한 그들을 잡아 가뒀네. 이런 억울한 일들을 보고도 나는 가만이 있어야 하네. 물론 이것은 그 어떠한 한 사람만이 당한 것은 아닐세.”²⁹⁾

인용 장면은 엄수근이 아무런 잘못 없이 김포 민란에 연루되어 모진 고초를 받았지만 연암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때, 과학자 홍담헌과 무관 백영숙이 찾아와 그를 위로해주고 있다. 인용 대사에서처럼 연암은 새로운 조선의 개혁을 바로 노동하는 백성에서 찾았다.³⁰⁾ 이 시나리오 속에서도 광의의 개념으로서 긍정적 인물군은 노동하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연암을 둘러싼 실학사상을 가진 사대부 홍담헌, 백영숙, 유사경 등을 들 수 있으며, 연암을 따르는 제자 리덕무, 류득공, 박제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박제가는 연암협에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연암을 도와 수차를 조립하고 논농사 사업에 일조한다. 더불어 연암의 가족과 신편들, 엄수동 등이 긍정적 인물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용 대사에 나오는 “양반 토호들”이나 “관리”는 부정적 인물군으로 홍보영과 좌포장, 김사행, 기

29)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상), 34쪽.

30) “연암의 예술의 위대성, 그의 다방면성과 심오성은 우선 그가 자기 시대의 인민 앞에 제기되었던 과업을 옳게 이해하고, 그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친 열렬한 애국자, 투사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김하명, 「연암 박지원의 유산과 오늘 우리의 문학」, 『박연암 논문집』, 국립출판사, 1957, 125쪽.

찰포교로 그 축을 이루고 있다.³¹⁾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지향하는 우리가 귀농한다는 건 좋지만 쫓겨 가야 할 터이 있는가? 지금 그 자들의 처지로는 우리를 더 이상 음해하진 못할걸세. 무슨 우리의 힘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서로서로 권력을 잡아 보겠다고 당파싸움에 눈이 뒤집힌 그 자들 서둘러 우리에게 손을 댔다가는 반대파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놈도 우리에게 함부로 손을 못댔단 말이네.”³²⁾

두 인물군의 갈등은 자신의 봉건적 신분제도를 지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과 새로운 진보사상으로 생활을 개혁하려는 자들의 대립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두 인물군이 실제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붙지는 않는다. 인용대사처럼 박연암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가거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곧, 대립은 있지만 갈등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천리마 시대’에 부정적 인물을 많이 노출한다는 것은 긍정적 인물의 훌륭한 사상과 행동을 보여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³³⁾ 그래서 시나리오 안에서 두 인물군이 날카로운 대립상황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없다.

물론, 부정적 인물군의 횡포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인물들은 있다. 시나리

31) 시나리오 「박연암」에서 연암을 둘러싼 지인들과 제자들, 가족들 실제 인물들로 그려져 있고, 엄수근 가족인 엄수동, 순이, 신탄들은 작가가 만든 허구의 인물이다. 그리고 부정적 인물군에 홍보영은 홍국영을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연암의 글방에서 김사행의 글방으로 옮겨간 박동수는 「허생전」 속의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고 『열하일기』를 불속에 던져 넣으려고 한 인물이다. 실제, 박동수는 ‘박산여’라는 인물이 모델이 되었다.

32)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하), 38쪽.

33) “지금까지의 우리 극예술 작품들의 대부분이 적대적이 간의 모순에서 긍정과 부정, 새것과 낡은 것 간의 갈등을 찾았던 타성도 있어 긍정과 부정을 취급화 하고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정을 더 로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극작품의 부정인물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 인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윤세평, 「천리마 현실의 반영과 극적 갈등문제」, 『문학신문』, 1961. 11. 3.

오 속에서 「예덕선생전」의 주인공이었던 엄수근은 아무런 죄 없이 좌포장에 끌려가 산송장이 된 채, 풀려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아내도 화병으로 세상을 등진다. 그의 딸 순이는 홍보영의 노비로 끌려가 호시탐탐 급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이 고문을 받는 장면이나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면은 없다. 단지 인물들의 대사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그 사실이 담겨져 있을 뿐이다.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더 이상 긍정적 인물들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옹크려 들지 않는다.

『열하일기』란 책 표지 우에 붉은 인주에 찍인 <금서(禁書)>란 두 글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시 그 표지는 뜯기며 새로이<예기(禮記)>라고 쓴 표지 뚜껑이 거기에 붙는데 그것을 갈아붙이는 손들의 주인공들의 웃음 띤 얼굴이 나타난다. 젊은이들, 노인들, 머리만 총각, 초립동이, 각 쓴 이들.

박연암이 걸어서 화장산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데 길가의 동리 사랑에서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늙은이의 「허생전」 읽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를 엿듣는 박연암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며...³⁴⁾

중국을 다녀온 뒤, 연암이 집필한 『열하일기』 안에는 「허생전」 등을 비롯하여 조선 양반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열하일기』를 ‘금서’로 지정하고 책들을 거둬들인다. 하지만 『열하일기』는 모든 백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조선의 어느 마을에서 널리 읽혀진다. 아무리 부정적 인물들이 긍정적 인물을 막아도 긍정적 인물은 지지 않는다. 한편, 부정적 인물들은 긍정적 인물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활과 사상을 반성하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천리마 시대에서 부정적 인물에 대한 개심이나 심리적 변화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당적 충실성으로 투쟁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긍정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대립은 있어도 결코 지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³⁵⁾

34) 윤세평, 시나리오 「박연암」(하), 『조선영화』, 조선예술사, 1960. 12. 40쪽.

“부자들의 토지 겸병을 금하고 밭갈이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산지대 같은 것도 잘 이용하여 얼마든지 우리 살림살이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요.”³⁶⁾

“저희들이 흩어져 있으니 이러구 지내지만 또 모이게 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걸요. 처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리고오라고 통문이 온 걸 보면 이번에는 든든히 차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애요.”³⁷⁾

“노는 사람이 없고 빼앗아 가는 것이 없으니 모두들 살림이 유족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시험해보려고 하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처럼 찾아뵈게 된 것도 선생이 연구하신 이용후생의 글을 얻어갈가하여 왔습니다.”³⁸⁾

그의 눈앞에는 다시 무인도 농민들의 공동작업 장면이 떠오른다. 무르익은 오곡을 거둬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엄수동이와 신탄돌, 순이의 웃음 띤 얼굴이 보인다.³⁹⁾

위의 인용한 대사와 지문은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 속 긍정적 인물들의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맨 위의 대사는 박연암이 연암협회의 노인들에게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 토지를 가꾸고 개간해서 모든 노동하는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토지는 농사짓는 농민들 손으로 다 같이 협심해서 공동체적으로 일구어져야하며 모든 노동하는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 김포 민란 창의대 소속 신탄돌의 대사로 창의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35) “부정적 인물의 드라마는 그 자체로 볼 때 심각할 수도 있으며 <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심각성과 극성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정화(淨化)할 수는 없다. 또한 부정적 인물의 개면을 지면에 할애할 필요가 없다.<중략>오로지 당적 인간 그것은 투사를 의미하며 그러는 그는 계속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박태영, 「당적 인간의 창조-드라마 뚜르기」, 『문학신문』, 1958. 4. 24.

36)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상), 40쪽.

37)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하), 35쪽.

38)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하), 39쪽.

39)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하), 40쪽.

협동체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암협을 떠나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대사 속에는 노동하는 인민들, 협심하는 인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나타내는 계급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대사에서는 연암협으로 찾아온 수동이가 무인도 섬에서 창의대 사람들과 함께 협동 공동체를 살면서 끊임없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지문은 연암이 무인도에서 협동 농장을 꾸려나가는 노동하는 인민의 상을 그려보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에는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두 축으로 대립하지만 이러한 대립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극속의 갈등을 통해 긍정적 인물은 부정적 인물과 대립은 있지만 긍정적 인물들을 절대로 지지 않는 생활적 투사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인물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데 어울려 협동체적 공동사회를 만들어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표면에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연암 박지원의 행적과 작품에 담긴 개혁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긍정적 등장인물들을 통해 모든 인민들이 한데 어울려 농업협동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해나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화는 인민들의 노력투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비로소 진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3. 3. 들려주기 기법을 통한 인민 사랑 실천

소설은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식을 빌어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촉진하는 한편 영화예술의 표현은 극을 구성할 수 있는 장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편의 영화 작품을 구성해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희곡은 장면들이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루어 진행된다. 그에 비해 영화문학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도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연결하여 장면을 이루기도 하고, 같은 시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기 움직이는 인물의 세분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영화예술의 장면들은 작가의 전략

적인 구성방식이나 연출의 화면 편집방법으로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에서 장면들은 기본 서사 줄거리 안에 삽입된 주인공의 목소리나 등장인물의 목소리, 설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민대중에게 작가가 구축해내는 사상을 들려주는 장면으로 연출하고 있다.

박연암이 필통을 꺼내어 「전가(傳家)」라는 즉흥시를 지으니 화면과 함께 시 읊는 소리가 들려온다.

새쫓는 할아범 발독에 앉았건만
개꼬리같은 조이삭에 참새 떼 매달렸네
큰 아들 작은 아들 들에 나가고
외딴 집은 해종일 삼작문 향해 있네

병아리 치려는 수리개 멀쩡이 돌고
고지 꽃 핀 울 밑에 못담은 웃것네.

광주리 인 저 새댁 개울물 건너는가
아이와 누렁이 앞서락 뒤서락하네.⁴⁰⁾

위의 인용 글은 시나리오의 16장면으로 박연암이 유사경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가는 도중, 강원도에 인근 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시로 읊고 있는 부분이다. 농민들은 하루의 일상이지만 연암의 눈에는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풍경이다.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온 가족이 농사일에 전념하는 참다운 인민생활의 모습인 것이다. 이 장면은 가을이 된 조선의 농촌풍경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연암의 목소리로 직접 시를 들려주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인민대중은 풍요로운 가을 농촌 풍경의 푸근함과 더불어 박연암의 인민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40)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상), 37쪽.

박연암이 추고를 할 때 화면과 함께 설화자의 목소리가 띠옴띠옴 들려온다. “선골자에게 한 벼이 있으니 그는 예덕선생이라는 분이다. 종본탑(宗本塔) 동쪽에 사는데 마을 안 거름을 처내는 것으로써 생계를 삼고 있다. 모두들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란 상일을 하는 나이 먹은 사람을 칭하고 엄이란 그의 성이다.”

<중략>

“저 엄행수는 거름을 처내어 그걸로 먹고 사니 깨끗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생활은 참으로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건 더럽다고 하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데는 참으로 높단 말이다. 대개 굉장한 벼슬살이에도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자기 로동으로 벌지 않은 재물은 더러운 것이다. 지금 저 엄행수와 비교해서 내심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그 누구겠는고? 그러므로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받드는 것이다.”

설화자의 말소리가 그치자 추고를 끝낸 박연암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⁴¹⁾

시나리오의 11장면이다. 이 장면의 기본 이야기는 세 가지로 세분화 된다. 첫째, 포도청에 끌려간 아버지 엄수근의 소식 때문에 힘없이 다니는 수동이의 안쓰러운 모습과 무고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연암의 괴로운 마음을 담고 있다. 둘째, 자괴감에 빠진 연암을 찾아온 지인 홍담헌과 백영숙은 서로 다시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담고 있다. 셋째, 다시 얻은 희망으로 연암은 「예덕선생전」을 집필한다. 이러한 기본 서사구조에 설화자의 목소리를 삽입한 것이다. 설화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전달하는 묘사기법이다.⁴²⁾

이러한 설화는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주인공의 목소리보다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다. 설화는 기본 서사진행에서 자유롭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³⁾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작품의 사상이나 주제를 표현할 수 있

41)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상), 35쪽.

42) 우리는 영화문학에서 인물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려오는 기법을 시나리오 용어로 V.O(Voice Over)라고 한다. 이 기법은 희곡에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영화문학에서 더욱 많이 묘사되고 있다. 이른바 희곡에서 말하는 무대 밖의 대사라고 할 수 있다.

43) “극작품의 설화는 극의 구성과 밀착되어야 하며 그 사상적 주제를 형상적으로

으며 주인공과 주변 인물을 평가하기도 한다. 때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황과 환경적 요인을 담기도 한다. 인용한 설화는 단순히 「예덕선생전」의 내용을 들려주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다. 박연암이 조선 양반사회를 비판하면서 거름을 치는 엄행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인민 사랑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 설화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을 극 세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박연암의 인민 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때 박제가는 「허생전」을 보다가 그만 흥이 나서 소리 내어 읽는다.

“이때에 변산에는 도적으로 지목받은 군중 수천만이 몰려 있었다. 지방관청에서는 군사를 풀어 놓아도 잡을 수가 없었으나 군중들도 봉쇄를 당하여 시재 주려서 곤경에 빠진 터에 허생은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의 눈앞에는 허생전의 화면이 그대로 떠오른다.

<중략>

「허생전」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박동수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며

“선생님, 저를 나무라십니다만은 저런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꽤서만 나불어도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모르거든 잠자하고 듣기나 해라.” 박연암은 박동수를 꾸짖으며 담배만 피운다.

박제가가 「허생전」을 계속해서 읽는데 또다시 그들의 눈앞에 「허생전」 화면이 나온다.

<중략>

「허생전」을 다 읽고 난 박제가와 이덕무가 만족하며 “거, 참 통쾌하군!”⁴⁴⁾

중국을 다녀온 뒤, 박연암이 ‘연암산거’에서 두문불출하고 집필한 「허생

부각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극작법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화를 극의 시작과 발전, 절정과 결말 등 극의 발전관계에 따라 그 구성 체계에 알맞은 다양한 탐구하고 특색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강진, 앞의 책, 418쪽.

44) 윤세평, 앞의 시나리오(하), 39-40쪽.

전」을 제자들과 모여 앉아 읽고 있는 시나리오의 35장면이다. 인용한 지문과 대사는 앞서 설명한 들려주기 방식과는 다른 형태를 지녔다. 박연암이 직접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설화자가 들려주는 것도 아니다. 이 장면은 작가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들려주기 한 방식으로는 「허생전」 내용 전달과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제가 「허생전」을 읽음으로써 들려주는 화자가 되고, 「허생전」의 주요 장면은 화면으로 삽입하여 실제 극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용 글에 중략부분이 보여주기 부분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략” 부분은 허생이 군도들을 이끌고 무인도에서 공동체 사회를 이끌고 사는 모습이 그려졌고, 두 번째 “중략” 부분은 자신의 권세와 명리만 좇는 어영대장이 허생에게 혼이 나서 쫓겨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장면들은 인민들을 구호하고자하는 허생과는 반대로 자신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않는 양반사회의 모순을 ‘어영대장’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로, 이 장면이 작가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사상성과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등장인물인 박제가와 이덕무처럼 통쾌한 동질성의 감정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윤세평의 시나리오 「박연암」에서는 기본적인 서사구조 속에 들려주기 기법을 사용하여 박연암이 가진 인민 사랑이라는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윤세평은 직접 주인공의 목소리를 삽입하여 노동하는 백성들의 순박한 모습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본다. 때로는 설화를 삽입하여 신분 귀천 없이 자신의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내는 인민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시나리오 속에는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인민을 구호하고자 하는 박연암의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4. 마무리

윤세평은 1930년대 말에 우리 문단의 비평논의에 개입하면서 정식 문단활

등을 하였으며 월북이후까지 문학 비평 활동에 주력한 실천적 이론가였다. 그는 월북 후, 북한 비평문단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문단의 주력 매체에 근무하면서 출판, 교육계에도 이바지하였다. 특히, 고전문학에 대한 주해와 연구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 비평가의 위상과 연구가라는 입지를 단단히 조성했다. 그러나 그는 숙청과 함께 북한 문학사나 관련서적 기록에서 조차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학 내부의 편향적 연구가 그를 잊혀진 채 내버려 두었다. 북한의 비평 활동의 토대를 마련한 그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몇 개의 지나지 않는 개별연구 또한 그의 논의를 끌어다 와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글쓰이는 재복시기 그의 문학 활동 양상을 살펴면서 이론을 창작으로 실현한 그의 시나리오 「박연암」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평가로 우리 문학사에 알려진 윤세평은 1960년 『조선영화』(조선예술사, 1960. 11-12)에 시나리오 「박연암」을 선보였다. 이 시나리오의 창작은 북한에서 민족문화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오던 고전작가와 고전작품에 대한 연구를 보다 인민들에게 잘 반영하기 위해 영화예술 갈래로 창작되어진 것이다. 그의 시나리오 「박연암」에서는 드러나는 특징으로 첫째, 소설적 서사기법을 중심으로 펼쳐진 서사를 완급 진행시키면서 봉건적인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낡은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들과 부정적 인물들의 갈등은 있으나 그 갈등을 증폭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천리마 시대에 당에 대한 충심과 투쟁의 성과를 빛어내는 긍정적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결국 긍정적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경제공산주의 천리마적 기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 「박연암」에서 기본 서사구조에 삽입되는 주인공의 목소리, 설화, 등장인물의 들려주기를 통해 박연암의 인민 생활에 관심, 인민 사랑의 실천을 반영하고 있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박연암」이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고전문학의 해석과 관점에 대한 예

술적 사료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전후복구 시기이후 우리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집중하였다. 고전문학 영역에 대한 두터운 역량을 지닌 윤세평은 계급 투쟁적 관점으로 연암 박지원의 사상을 자신의 시나리오 속에 확장시켜 놓았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남북한이 민족문화인 고전문학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 관점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천리마 시대의 전형적인 당적 공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른바 천리마시대는 북한의 공산주의 문학을 알리는 시작이다. 물론 북한사회도 독자적인 공산주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었다. 이 시점에서 북한사회에서 형상화되는 공산주의 전형의 모델을 ‘박연암’으로 삼아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문학, 특히 북한 공연예술 연구의 연속성을 마련해주는 작품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현재, 북한의 공연예술 연구는 광복직후의 연극운동과 공연상황, 혁명가극과 영화의 발생 사이에 많은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문학사적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렇듯 윤세평의 재북시기 알려지지 않은 삶과 방대한 문학 활동은 우리가 갈무리해야 하고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료이다. 그에 대한 기초적 문헌과 기존의 연구의 부족이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꾸준한 작품 발굴 작업과 생애 조사를 통해 개별 연구에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윤세평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확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부족한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윤세평(1960), 시나리오 「박연암」 (상), 『조선영화』, 조선예술사.
- 윤세평(1960), 시나리오 「박연암」 (하), 『조선영화』, 조선예술사.
- 윤세평(1954), 「18세기 실학과 사상과 박연암의 문학」,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윤세평(1954), 「『연암작품선집』에 대하여」,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 윤세평(1954), 「『연암』」,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 윤세평(1955), 『우리나라의 애국적 학자 박연암선생』, 민주청년사.
- 윤세평(1955), 「박연암과 그 미학적 견해」, 『박연암연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윤세평(1955), 「연암과 조선문학」,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 윤세평(1955), 「박연암의 열하일기」, 『민주조선』, 민주조선사.
- 윤세평(1956), 「김하명 작 『연암 박지원』」, 『조선어문』 제1호, 과학원출판사.
- 윤세평(1956), 「박연암과 연암동에 대한 수기」,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 윤세평(1957), 「연암과 사실주의의 힘」 (박연암 탄생 220주년 기념특집, 『조선문학』 3월호,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 윤세평(1962), 「박연암의 진학시절」, 『새세대』 5·6월 합호, 조선민주청년동맹위원회.

2. 단행본 및 논문

- 강진(1990), 『우리식 극작법』, 문예출판사, 291쪽. 418쪽.
- 권유리아(2009), 「1930년대 윤규섭 비평의 다혈질적 원칙주의」, 『국어

- 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 김하명(1955), 「연암 박지원의 미학적 견해」,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3면.
- 김하명(1957), 「연암 박지원의 유산과 오늘의 우리 문학」, 『박연암 론문집』, 국립출판사, 125쪽.
- 김하명(1958), 「연암 박지원과 그의 문학」, 『고전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남원진(2009), 「윤세평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학론의 향방」,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80쪽.
- 류희정(2009), 『해방전 평론집』, 문예예술출판사, 2009.
- 류희정(2015), 『해방후평론집』, 문예출판사.
- 문의영(1961), 「당일군의 형상화-예술영화 <분계선의 마을에서>, <한마을에서>, <용해골>을 중심으로」,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 박태영(1957), 「문제성과 드라마 뚜르기야」,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4면.
- 박태영(1958), 「당적 인간의 창조-드라마뚜르기」,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3면.
- 박태일(2016), 「재복시기 윤세평 문헌지」, 『근대서지』 제14호, 370-410쪽.
- 서경석(2004), 「'KAPF'에 대한 카프 주변부의 비판과 그 가능성」,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 서만일(1955), 「극작법에 대하여」, 『창작의 길』, 조선작가 동맹출판사.
- 서연호·이강렬(1990), 『북한의 공연예술 I』, 고려원.
- 송소라(2015), 「북한의 『심청전』 수용양상과의미」, 『Journal of Culture』 30집.
- 신구현(1955), 「선진 사상이 연암 박지원」,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 신재기(1993), 「문학과 생활실천- 1930년대말 윤규섭의 비평의 의미」, 『예술논문집』 32.

- 신지연(2012), 「북한문단의 자유시 운율1957 - 1961년 사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집.
- 오하근(2006), 「김환태의 인상비평과 윤규섭의 경향비평론」, 『한국언어학회』 57.
- 윤세평(1946), 「동해물」, 『신문학』 제2호, 서울타임스사출판국.
- 윤세평(1947), 『신조선민족문화소론』, 민주조선출판사.
- 윤세평(1956), 「민중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모독한 리태준의 반혁명적 문학 - 그의 소설 『농토』와 『호랑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로동신문』, 로동신문출판사.
- 윤세평(1956), 「몽골 녀성들」, 『조선녀성』 12월호, 조선녀성사.
- 윤세평(1957), 「고전작품의 무대 예술화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6, 조선예술출판사.
- 윤세평(1958), 『해방전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윤세평(1961), 「생활과 사상, 기교의 문제 - 천리마적 현실의 진실한 반영을 위하여」,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 윤세평(1961), 「천리마시대 정신과 우리문학」, 『문학연구』 3, 과학원출판사.
- 윤세평(1961), 「천리마 현실의 반영과 극적 갈등문제」,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위원회. 5면.
- 윤세평(1961), 『생활과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이상숙(1997),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 논의의 양상」, 『국어국문학』 120호, 국어국문학회.
- 전영선(2014), 「북한의 민족문학이론가, 문학평론가 윤세평」, 『북한을 움직이는 문학예술인들』, 역락.
- 정동석 봉사기자(1961), 「천리마기수들에게 영광을!」,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4면.
- 최명표(2015), 「인식의 비평과 비평의 인식 - 해방전 윤규섭의 비평론」, 『인식과 비평』 (윤규섭의 비평전집1), 신아출판사. 420-437쪽.

【Abstrac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Yoon Se-Pyeong's Scenario

-Base on Yoon Se-Pyeong's Scenario 「ParkYeonam」

Kim Bong-hee

This study is about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scenario “Park, Yeo-Nam” (“Joseon Movie”, 1960. 11-12) by the procommunist artist known as the critic, Yun Se-Pyeong.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in his scenario. First, the scenario criticizes an old idea of a feudal aristocratic class in the late Joseon Period by controlling the speed of narration in progress. Second, the scenario also features their new economy of communists in the Cheollima period through positive characters in his scenario. Third, it reflects Park, Yeo-Nam's Public love through the main character's voice in his scenario “Park, Yeo-Nam”, the tale, and the characters give a talk.

Based on the preceding discussion, looking at the meaning of our literary history, scenario “Park Yeo-Nam”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could be an artistic historical record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orth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interpretation. Second, it is a literary work in the Chollima period that showed a typical of communist party. Third, it gives meaning to a work that provided the North Korean literature continuity, especially the study of North Korea's performing arts.

Yoon Se-pyeong's unknown life during the North Korean empire period

and his extensive literature activities are our precious data that we all have to embrace, collect and preserve. In many years to come, hope to proceed an in-depth study about Yoon Se-pyeong's life and literature .

Key words : Yun, Se-pyeong, North Korea empire period, scenario 「ParkYeonam」 , controlling the speed of narrative, Cheollima period, give a talk, the Public Love

이 논문은 2017년 2월 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